“한국 근로정신대 실상 알고 가슴 아팠다” 일본인들도 충격

할머니 자서전 읽은 신일본부인회 지부 회원들 독후감 보내와

“일본 정부·기업 사죄·배상 위해 광주 할머니들과 연대하겠다”

“송두리째 빼앗겼네 꽃다운 청춘/ 할머니 글은 서글픈 기록의 바다// 이웃 나라 소녀들이 끌려온 전쟁은/ 슬픔을 쏟아내는 평생의 상처로다”(노자와 마사코씨 ‘할머니의 노래’ 중에서)

일본 현지인들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광주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신일본부인회 야마나시지부의 60~80대 회원 6명이 광주 강제동원 할머니들의 자서전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을 읽고 쓴 시·감상문을 메일로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일본부인회는 여성과 아이들의 평화·행복을 지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다. 이 단체 야마나시지부 회원들은 지난 3~4월 할머니들의 자서전을 읽고 감상을 나눴다.

책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은 시민모임과 일본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출간한 책이다. 양금덕(92), 김성주(94)·정주(92) 자매 할머니가 일본에 끌려가게 된 경위와 현지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에서 싸워온 힘든 여정 등이 담겼다.

당시 일본 내 단체들도 책 출판을 도왔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모임), ‘후지코시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등의 도움을 받아 1500권을 인쇄, 일본 각지에 책을 배포했다.

신일본부인회 회원들 또한 나고야소송지원모임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씨, 그 친구 모테기 마사히로씨를 통해 책을 전달받았다.

회원들은 감상문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에 대해 전혀 몰랐다. 충격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야마다 히로미(77)씨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역사적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강제연행 사실을 감추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야자키 노부코(71)씨는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라고만 생각했을 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생을 마감해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혀를 찼다. 또 니시오카 토미에(85)씨는 “언제나 전쟁이라는 것의 희생은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슴이 아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를 질타하고 할머니들과 연대하자는 목소리를 낸 이들도 있었다. 세키 이쿠요(84)씨는 “국가도, 기업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런 다음 대화하고 보상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하야시 마리코(66)씨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할머니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신일본부인회 야마나시현 야마나시지부 ‘달맞이꽃’반 회원들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자서전 ‘빼앗긴 청춘 빼앗긴 인생’을 읽으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하야시 마리코, 야마다 히로미, 노자와 마사코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노자와 마사코(88)씨는 시 ‘할머니의 노래’와 단가(短歌) 등을 써 보냈다. 할머니들의 처지를 ‘노예’에 비유하며 탄식하고, “전시(戰時) 하로 다시 돌아간 할머니의 오감을 강탈하는 자서전”이라며 공감을 전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대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피해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라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으로 진실을 감춰 왔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며 “최근 일본 정부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의대생 5명 중간고사 커닝하다 걸렸다

조선대 측 징계 착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교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학생의 제보로 드러나 대학 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달 초 조선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 5명이 외과, 정신과 임상실습 과목 온라인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실습은 실습 태도와 임상실기, 필기시험 점수 등을 합산하며 필기시험 비중은 20% 가량을 차지한다.

대학 측은 지난 16~17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 측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필기 점수를 0점 처리하고 향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속칭 ‘커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과목은 F학점(낙제)으로 처리된다.

의과대학의 경우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으면 해당 학년에서 유급된다.

일부 학생들은 문제가 적발된 직후 바로 0점 처리 및 유급 결정을 해야 했다고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도-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12년만에 종결

광주고법, 화해 권고 결정

12년 이상 끌어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3일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소방관)는 피고(전남도)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포기한다”고 결정했다.

양 측이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12년 이상 끌어온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전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433명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 제기 3년 만인 2012년 8월 법원은 1심에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10월 타 시·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에서 “휴일 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 수당은 중복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전남 소방관들은 2012년 지급받았던 휴일근무수당과 이자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방공무원 1인당 500~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맞서 전남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근무(주로 아침 시간 공동 근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과 근무(휴게시간 근무 등) 수당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고, 이번 화해 결정으로 양측은 가지급금 반환 청구 및 초과근무수당 추가 청구분을 각각 포기하는 선에서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김형호 기자 khh@

‘1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 무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중소상인과 가맹점주 등의 반발에 6개월 유예됐다. 제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뤄진 것이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월 10일 예정된 시행을 유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공원 10곳서 야생진드기 발견

광주 도심공원과 연결된 등산로 주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4~5월 광주 2만㎡ 이상 다중이용 공원 30곳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의 산책로와 연결된 등산로 인근 수풀에서 참진드기가 채집됐다. 5곳에서는 발열, 오한 등을 일으키는 라임병, 홍반열 병원체가 검출됐다. 아직까지 공원 내 잔디밭과 산책로에서는 참진드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산책로, 등산로가 아닌 수풀이 우거진 곳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긴 소매·바지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당부했다. 또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사워 등을 통해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고열과 두통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